

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. 세상 속에도 풍랑이 있고,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도 풍랑이 온다.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위로가 되는 좋은 말들이 많다.

**성경은 이 풍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?** 모든 성도들이 풍랑을 당하지만 전도자들이 당하는 풍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? 본문에 전도자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풍랑을 만났다(20절). 풍랑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다. 풍랑이 없이 전도자로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. 그럼에도 풍랑이 올 때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할까? 인생의 풍랑은 예상하지 못하고 당할 수도 있고, 예고를 받았는데 무시하다가 당할 수도 있고, 풍랑이 올 것을 알고도 당할 수도 있다. 사실 바울은 풍랑이 올 것을 알고 당한 경우이다.

**전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.**

그래서 그레테라는 섬의 비닉스라는 항구에서 잠시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. 바울이 전도자이다. 많은 현장의 경험이 있고, 세상 흐름을 안다. 기도하는 중이다. 영적으로 보고, 듣고, 느끼는 것이 있다.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각자 기준을 가지고 무시했다.

**우리가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다. 우리도 그 속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망해야 하는가?**

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한다.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, 하나님이 쓰실 수 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잡으라는 것이다. 그때만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은 절대적이다(25의 응답과 축복)

1.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깊이 누리고,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.

세상 사는 날 동안 끝없이 만나게 되는 풍랑들이다(인간의 욕심,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).

그렇다면 그것을 능가하고, 이기고,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. 그 힘이 보좌의 능력이다.

1) 보좌가 어떤 곳인가?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그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다(시103:19)

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, 도우시고, 역사하신다.

특히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위기에서 건지시고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신다(막16:19-20)

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인생은 천국 백성이 되고 보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.

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.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 백성이라고 했다(사43:1, 엡2:19).

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다(빌3:20).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(벧전2:9),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(눅17:21)

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곳, 천국 보좌,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최고의 배경이고, 축복이다.

②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다.

그리스도를 깨닫고 기도하기만 해도 “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도 매인다”고 했다(마16:19)

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(마18:18-20).

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교권이, 로마의 권력이 이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못 이겼다.

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천사들을 통해 보좌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(계8:3)

③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기도가 3, 9, 3의 기도이다.

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3, 3생명, 3권세, 3축복을 합쳐서 9, 그때 일어나는 시대 살릴 축복 3이다.

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무너지는 3시대(현장, 교회, 후대)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.

2) 이 하나님 나라,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 풍랑 중에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것이다.

①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리고도 더 이상의 살 소망이 끊어진 시간이라고 했다.

선장의 실력도, 로마 군대의 힘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다. 이때 바울은 이미 3,9,3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다.

②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가?

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그 배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.

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, 완전하고, 확실한 위로와 보장이 없다.

2.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계획(절대 미래)을 알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이다.

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풍랑 속에서 두가지의 절대 계획을 알려 주셨다.

1) 먼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었다.

이 풍랑 이전에 바울의 마지막 계획이 무엇이었는가?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본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(행19:21).

하나님은 그 이상이였다. 로마에서의 성공 정도가 아니다. 로마 복음화 정도가 아니었다.

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였다. 이것이 씨앗을 살리는 씨앗 복음화이다.

지금 우리가 이 시대 로마 미국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,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미래를 보며 가는 것이다.

2)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로마 복음화, 씨앗 복음화에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다.

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전도할 때 이 장군과 군인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게 만든 것이다.

이것이 로마로 가기 전 먼저 세워진 망대가 된다. 모든 풍랑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다.

3. 이 풍랑 속에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(절대 믿음).

바울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앞에서 “내게 말씀하신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(25절)

1)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.

어려운 풍랑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(행1:1), 하나님 나라(행1:3), 성령의 능력(행1:8)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.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고, 그 고백을 들으신다.

믿음이 나를 구원하고(막5:34, 10:52), 믿을 때에 세상 살릴 수 있는 표적이 올 것이라고 했다(막16:17-18)

2) 이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과 삶을 불신자와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본다. 그것이 전도의 중요한 문이 된다.

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된 다음 날, 그 배는 한 섬에 닿게 된다. 아직 풍랑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.

바울이 그 배에서 남은 떡을 나누어주며 하나님께 감사했고, 군인들은 안심하고 먹었다고 했다(35-36절)

그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했다. 로마로 가기 전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.

**결론-**풍랑을 당했지만 풍랑이 아니었다. 하나님이 쓰실 수 밖에 없고, 흑암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었다.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풍랑이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.